

# 영광군, 전남 체육대회 추진 보고회

### 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의견 수렴 차 열려 선수단·관람객 불편함 없도록 행정력 동원

영광군은 지난 2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4월부터 펼쳐지는 제 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 소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에 개최됐던 각 실과소별 실행계획 시달회의 때 각 부서별로 분담된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실행계획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광군은 △주차 및 교통대책 △경기장 운영 및 개·보수 △숙박·음식 등 손님맞이 점검 △대회 홍보 △의료 및 안전관리 대책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 △지원봉사자 운영 등 각 부서별 추진 경과 및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공개행사 연출 추진계획은 대행사인 ㈜광주방송에서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11년 만에 영광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대회기간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군이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체전이 역대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영광=서희권 기자

## 김명원 광양부시장, 국비확보 첫걸음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21일 (금) 지역 현안사업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했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이날 정 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에 ▲국립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800억 원(국비800억 원) 등 2건과 해양수산부에 ▲광양항만 해양산업관 건립 2,000억 원(국비2,000억 원), ▲광양마린베이 조성사업 1,000억 원(국비 1,000억 원) 등 4건, 국토교통부에 ▲남도2대교 건설 430억 원(국비215억 원), ▲섬진강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180억 원(국비90억 원) 2건 총 8건, 6,552억 원의 사업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현안사업은 3차례의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 발굴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한발 앞서 중앙부처 담당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1년 정부 예

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 제1차 '2021년도 국고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제2차 보고회, 올해 1월 최종 보고회까지 총 3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정부 예산의 흐름을 알고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간부공무원 초청,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시장, 부시장을 선두로 전 직원이 국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명원 광양부시장은 "작년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중양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건의하고 사전 절차 완료, 대응 논리 개발 등 2021년도 국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곡성군, 흑찰옥수수 지역 명품화 위해 시범사업 박차

곡성군이 올 한 해 추진할 흑찰옥수수 시범사업을 확정하며 흑찰옥수수 지역명품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부직포 터널을 이용한 조기재배 시범사업이다. 일반적인 옥수수 수확시기보다 1개월 가량 빠르게 수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추가 조성이다. 단지에서 출하되는 찰옥수수는 곡성농협 및 옥과농협과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다.

시범사업에 발맞춰 곡성군은 홍수 출하기를 피해 흑찰옥수수를 분산 출하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3월 중순 3ha 면적에 흑찰옥수수를 정식해 6월 말경 가장 먼저 흑찰옥수수를 출하한다. 이어 4월 초부터는 노지 재배를 실시해 7월 중순경부터 제철 맞은 흑찰옥수수를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흑찰옥수수는 고소한 맛과 쫄쫄한 식감으로 지역 명품로 자리잡고 있다. 지리산 자락의 높은 주야간 온도차와 과일, 찰옥수수 등 농작물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곡성군에서도 삼기면 흑찰옥수수는 맛, 질감, 양감 등이 뛰어나다.

고소한 맛이 입소문을 타자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농가

들이 개별적으로 직거래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옥과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흑찰옥수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농협이 인터넷 판매 등 판로 확보에 앞장서면서 농가들도 좋은 흑찰옥수수 생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옥과농협은 농협육묘장을 통해 직접 어린 옥수수를 길러 고품질로 인한 노동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생산농가 단체인 삼기흑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겨울철 별미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홍수 출하기에 수확되는 흑찰옥수수를 냉동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현

재 내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이와 같은 흑찰옥수수의 인기에 더 좋은 품질을 위해 농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역명품로 자리잡으면서 농가들 교육열도 매우 높다. 매년 초 진행되는 강원도기술원 산하 옥수수연구소 전문가 초청 교육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고품질 안정생산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앞으로 찰옥수수 생산단지 시범사업 참여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지역농협, 생산 농가 단체와의 협력으로 흑찰옥수수 명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나주시, 마한문화제 포스터 전국단위 공모

나주시는 제6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포스터 디자인 전국단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6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간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마한문화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제 개최 이래 처음 마련됐다.

공모전은 마한문화제가 갖는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개인, 광고·디자인 업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며 시청 누리집 공모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 시청 역사관광과(본관 2층)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bmw320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 결과는 4월 중 시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 고흥군,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추진

고흥군은 에너지나눔 복지실천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등 경제적 여력 및 자활능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장흥=위지훈 기자

## 별교꼬막 안심하고 드세요



세계 10대 갯벌 안에 손 꼽히는 별교만의 갯벌은 머드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다. 아직까지 이곳 별교에서 서식하고 있는 별교꼬막은 단 한번도 패류 독소가 나오지 않았으며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보성=김덕순 기자

소비자들이 패류를 선호 하지만 여러가지 불안요소로 인해 꺼리는 이유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별교꼬막은 명성에 맞게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에서 서식하고 생산되어 소비자들의 안심먹거리로 밥상에 오르고 있다.

요즘시대에 안심수산물을 찾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여민들과 보성군의 끝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수 있다.

보성군 김철우군수는 보성별교의 주생산원인 별교꼬막의 양식환경을 청정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심먹거리로 등극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징수 제정

여수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현태, 문갑태 의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1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현태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석면해체·제거업

# 신원건설산업(주)

##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